

# 서울대학교 '비전 2025'의 당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3호 편집위원회

우리 서울대학교는 최근에 이른바 '비전 2025'라는 대학발전 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용인 즉 2025년에 서울대학교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기반의 강화를 통하여 먼저 세계 초일류 달성이 가능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학술 분야의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교수들의 세계 수준의 학문적 수월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앞으로 10년 내에 국민소득 40,000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도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대학의 출현 또한 필연적인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우리 서울대학교 하나만이라도 필요한 모든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에 있는 도쿄대학과 같이 말이다. 그렇게 되려면 질서적이고 경쟁적이면서 결코 고운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방대학들의 반대적 자세를 잘 어루만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목표의 달성이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우선 교수들의 사고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서 그런대로 국내에서는 제일가는 대학으로서의 위치를 구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세계 10위권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려면 교수가 밤낮 없이 연구와 강의에 몰두하여야 한다. 한편 학생들의 마음가짐 또한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고 나면 너무 자유로운 시간을 누려왔다. 아르바이트다, 동아리 활동이다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명문대 학생과 비교할 때 우리 학생들의 학습량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세계 꼴지 대학생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대학에는 놀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말도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 물론 정부나 우리 서울대인들이 일체가 되어 대학발전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특단의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해 두는 바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특별기고에서는 대학발전기금의 중요성과 조성 방안도 논의된다.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후배와 제자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미담 사례도 아울러 소개코자 하는 바이다.

우리 서울대학교가 2025년에 이르러 세계 10위권의 명문대학으로 발전된다면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학교가 국가의 품격을 더 높여 격상시키게 될 것이

다. 이런 나라에 만들어지는 각종 공산품의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지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서울대학교가 세계적 명문대학이 되고 나면 그 열매는 고스란히 국가와 민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서울대학교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 교수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

인문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 이 현 복

### 1. 정치교수는 캠퍼스에서 사라져야 한다

지난번 대선과 총선을 겪으면서 폴리페서(polifessor)란 신조 합성어가 나왔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대학과 정치에 양다리를 걸치는 정치교수를 뜻하는 말로 탄생하였다.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들 가운데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관직이나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어 뜻있는 교수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그 도를 벗어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교수면 교수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만 교수직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교수가 있어 학내에 문제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정치교수, 이른바 폴리페서는 우리 캠퍼스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학 당국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다수의 동료 교수들은 믿고 있다. 정치판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교수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 교수에게 있어서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지 정치인이나 고위 관리의 양성소나 배출대가 아니다.

우리 교수들 가운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대통령 선거철이 돌아오면 어느 후보의 캠프에 가서 일을 거들까 하고 기웃거리는 사람이 더러 눈에 뜨인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럴까? 첫째, 이런 이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연구나 강의 같은 교수의 기본 임무는 안중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새는 새일지라도 나르지 못하는 펭귄 같은 새(교수)라고 해도 변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둘째,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할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이다. 교수가 학기 중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면 학생들은 그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강의를 제대로 수강할 수가 없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교수들이 연년세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기 분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더 보람 있고 명예로운 일이 따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어찌하여 일부 교수